

다자간철강협상(MSA) 타결 가능

12월 목표로 조정작업

다자간 철강협상(MSA)의 참가국들이 오는 12월을 목표로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타결이 유력시된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공동체(EC) 한국 일본 등은 지난 28, 29일 이틀간 파리에서 비공식 4개국회의를 열고 다자간 철강협상의 타결을 위한 이견조정작업을 벌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EC 등 24개국 대표들은 지난 5~7일 제네바에서 제 14차 다자간 철강협상을 갖고 협상타결방안을 논의했으나 반덤핑 남용방지조항의 명문화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비공식 4개국회의에서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오는 11월 중순 제네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타결방안을 최종논의키로 했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철강

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UR 타결시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타결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반덤핑 제소남용을 막기위해 제소자격을 강화하고 원가인하 판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자는 한국과 일본 등의 주장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美·EC 농업협상 또 결렬

UR 연내타결 불투명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브뤼셀에서 속개된 2차 고위급 접촉에서도 최대 쟁점인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에 실패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연내 타결 기대를 다시금 무산시켰다.

현안 타개를 위해 브뤼셀

을 방문 중인 미키 캔터 美부 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리언 브리턴EC무역담당 집행위원 및 자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절 답변을 거부, 협상의 결렬을 시사했다.

캔터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도 농업보조금 삭감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프랑스측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은 물론 이 문제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협상대상에서 일시 제외시키자는 프랑스의 수정제의도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佛 INSA와 협력협정

지난 15일, 엑스포 프랑스관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프랑스 국립응용과학대학(INSA)와 협력협정을 체결키로하고 엑스포 프랑스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협정조인식에는 조엘 로사 총장등 INSA관계자들이 참석하였는데 INSA는 36년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 최대의 이공계대학으로 우리나라

에 도입키로 되어있는 TGV 고속전철 관련연구도 수행, 관련기술의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